

“따뜻한 조명과 높은 서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공간입니다.”

- 사이타마 현에서 온 도서관 이용자

문화와 ^{포럼} 도서관

즐거움

제18회 열혈 사서들의 수다

“다케오시도서관,
도서관의 미래인가?”

2000년 10월 개관
2012년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CCC)를 지정관리자로 지정
2014년 4월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
스타벅스, 영화음반대여점, 서점 입점
야간개장, 365일 연중무휴 운영
T 포인트 카드 도입
22주제 분류
연간 100만명 방문
연간 운영예산 9,000만엔 절감 주장
경제효과 연간 20억엔





[하루로는 부족한 도시...일본 사가현 다케오](#) MTN | 2016.07.16. | [↗](#)

책을 읽지 않아도 좋은 **다케오시립도서관** 내부이 작은 온천마을에서 매일 아침 숙박 연장을 고민하게 한 것 중 하나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이었다. 나는 여행을 가면 그곳의 도서관이나 서점 한군데는 반드시 들리는 편인데...



[책 읽고 싶게 만드는 일본 도서관](#) 표표사사 | 2016.03.12. | [↗](#)

연간 관리비용만으로 14억원 이상이 들어가던 일본 사가현(佐賀?)의 **타케오시(武雄市)**의 공립 **도서관**을 츠타야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지방 소도시의 **도서관**임에도 리뉴얼 개장 후 1년 만에 연 이용자가 92만명에 이를...



일본 규슈의 **다케오(武雄)**시다. 특히 시립 **도서관**을 꼭 둘러봤으면 한다. 3년 전 민간업체가 나서 딱딱한 공급자 중심의 **도서관**을 시민 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바꿔 명소가 된 곳이다. 창고에 감춰져 있던 장서가 전면으로...



[\[지금 규슈에서는\] "50% 가능성만 있으면 움직인다" 다케오시의 과감한 행정...](#)

부산일보 | 2013.06.01. | 네이버뉴스 | [↗](#)

"시민가치를 향해 행정을 오픈한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28일 **다케오시 도서관**. 2층까지 탁 트인 **나보다 우리, 홀로 아닌 다함께 노는 곳이 진정한 '21세기형 문화공간'** 이코노미조선 | 2015.07.03. | [↗](#)



[\[미디어 세상\] 언론사에 데이터 최고 책임자\(CDO\)를 허하라](#)

경향신문 | A28면 TOP | 2016.01.05. | 네이버뉴스 | [↗](#)

2012년 **다케오** 시 **시립도서관**의 운영권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존의 십지분류법을 버리고 현실 생활과 밀접한 '22종 분류법'을 적용했다. 18만권의 도서를 시내 체육관으로 옮겨 새로운 분류법에 따라 전부 배치...

당까지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병 1000억원이 줄었다. 이곳은 인구 5만

[\[지만/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스 | [↗](#)



그런가 하면 **다케오** 시립 **도서관**은 십지분류법을 버리고 생활과 밀접한 '22종 분류법'을 채용하거나 잡지와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을 입점시키는 등 기존의 **도서관**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방문객을 7배 이상...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바뀔 것이다](#) 시사N | 2016.05.23. | 네이버뉴스 | [↗](#)

여 대표는 일본 규슈로 여행을 갔다가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본 뒤 이 책을 기획했다고 한다. 조그만 동네에 멋진 도서관이 있고, 많은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 기획했다는 것이다. 여 대표 역시...

“서적은 제안 덩어리다. 그런 제안 덩어리를 모아 놓은 도서관은 그야말로 지적자본을 사회에 확장해 정착시킬 수 있는 거점에 해당되는 시설이다. 나는 늘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공공시설은 도서관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 본문 p.78



知的資本論
すべての企業が
デザイナー集団になる未来

지적자본론

마스다 무네키
이정환 옮김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